

# 후보 7인 저마다 “재정난 타개 내가 적임”

막 오른 조선대 총장선거...주요 쟁점은

## 학생수 감소 등 침체된 대학 위상 회복 관건

오는 20일 실시되는 '제16대 조선대 총장 선거' 열기가 6일 후보 등록을 계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개교 70주년을 맞는 대학 위상에 불구, 입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과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호남 대표 사학의 명성을 회복할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다.

◇7파전...“내가 적임자”=조선대 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모두 7명이다.

후보는 ▲강동완 치의학과 교수 ▲민영돈 의학과 교수 ▲박대환 독일어문학과 교수 ▲이계원 경영학부 교수 ▲이종범 역사문화학과 교수 ▲임동윤 의학과 교수

▲차용훈 기계공학과 교수 등이다.

강동완 교수는 네번째 도전에 나섰고 박대환·임동윤 교수의 경우는 세번째, 이계원 교수는 두번째 출사표를 던지며 열의를 다지고 있다.

대학 안팎에서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열을 남겼던 짧은 선거 일정으로 인해 구성원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관리하는 선거 방식이 통용되기 어려운데다, 결선투표 미실시와 학생표 향방 등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고 있다.

◇핵심 이슈는 위상 회복·재정난 타개=선거전 핵심 이슈는 누가 침체된 대학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인가 여부이다.

당장, 조선대는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입학정원을 528명 줄이면서 35억원의 수익이 줄었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우려,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신입생 유치도 한계에 내몰렸다.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에 선정했다가 탈락하는가 하면, 뒤늦게 신청한 '인문역량 강화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등 학교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했다. 장기적 안목의 리더십을 갖고 추락한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대학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강동완 교수는 7만2000명의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학교가 설립된 점에서 착안, '어게인 7만2000' 프로젝트로 대학 경

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영돈 교수는 병원장을 지낸 후보자로 경영 노하우를 살려 재정을 안정시키고 교육·연구 지원을 강화해 대학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박대환 교수는 총장 직속의 국책사업유치단·수익사업추진단을 통한 재정난 타개 및 정부지원사업 수주에 힘써 연구·교육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계원 교수는 구성원 역량을 모아 학교 비전을 세우고 학교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경영학부 출신의 재정문제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 다른 후보자들도 저마다 “내가 적임자”, “준비된 전문가”라며 구성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선거 운동에 뛰어 들었다. 조선대는 이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 합동연설회 및 정책설명회를 연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추석 귀성 14일 오전·귀경 15일 오후 가장 혼잡

서울→광주 7시간 전전과 비슷...10명당 8명 승용차 이용

올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광주 7시간, 서울→목포 8시간50분으로 예측됐다. 귀경길의 경우 광주→서울 5시간10분, 목포→서울 6시간15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 추석 귀성·귀경길 소요시간은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추석 전날인 14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15일 오후에는 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국도교통부는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13일~18일 동안 예상 이동인원은 3752만명으로 하루 평균 625만명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3724만명) 대비 0.8%(28만명) 증가했으며,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최대 79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39만대로,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9000세대를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귀성시 추석 하루 전날인 14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8.8%로 가장 많았고, 귀경의 경우 추석 당일인 15일 오후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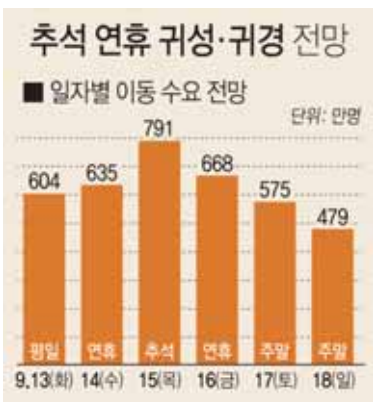
추석 다음날인 16일 오후 출발도 20.1%로 나타나 추석 당일부터 금요일까지 귀경교통량이 다소 집중되고 이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객이 이용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6%로 가장 많았고, 버스 11.2%, 철도 4.0%, 항공기 0.7%, 여객선 0.5%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

버스 1728회, 철도 58회, 항공기 20편, 여객선 210회 늘린다. 정부는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무인비행선 4대, 경찰헬기 16대, 암행순찰차 21대를 투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랏차차~모 나와라” 6일 광주시 북구 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2016개 사랑의 송편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부녀회원들이 한복을 곁에 차려 입고 율놀이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9, 해질 18:51, 달출 11:13, 달몰 22:15

감기 조심하세요

새벽과 아침사이에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22/29	보성	구름많음	19/28
목포	구름많음	22/28	순천	구름많음	23/29
여수	구름많음	23/27	영광	구름많음	21/28
나주	구름많음	21/30	진도	구름많음	22/28
완도	구름많음	22/28	전주	구름많음	21/30
강진	구름많음	20/29	군산	구름많음	21/28
강력	구름많음	21/29	남원	구름많음	20/28
해남	구름많음	20/29	축산도	구름많음	21/25
장성	구름많음	20/28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북~북동	동	북서~북	동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면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1.5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서~북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24	10:35	17:55	22:55
여수	12:10	05:44	00:00	18:13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	☀	☀	☀	☀	☀	☀
20/30	20/29	20/29	20/29	20/30	20/29	20/28

## “추억의 곤충 반딧불이 보러오세요”

광주 남구, 대촌천서 8~10일 3일간 체험행사

광주에서 추억의 곤충 반딧불이(일명 개뿔벌레)를 직접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남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포충사 주변 대촌천 일원에서 '제1회 대촌천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3일간 매일 오후 7시 남구 지석교 부근에 마련된 행사부스에서는 지난해 대촌천에서 발견된 반딧불이 사진과 반딧불이 관련 동영상 상을 볼 수 있다.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지석교~칠석보(1.5km) 구간을 걸으며 반딧불이를 직접보고 별자리를 찾는 행사가 진행된다.

남구는 반딧불이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접수한 주민들에 한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반딧불이 체험 행사 첫날인 8일 오후 3시부터 포충사 광장에서는 대촌천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제3회 대촌천 걷기대회'가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5시부터는 포충사 옆 공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대촌천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수백마리의 반딧불이가 초가를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문의는 남구청 환경생태과 062-607-364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C형간염 전수 감시...건강검진에 포함

의료기관에서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그동안 표본감시를 하던 C형간염을 전수 감시하기로 했다.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역학조사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

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조기발견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증원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은 신고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